| 전체세션 4 |

다중적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기본소득

: 노동·돌봄·생태 위기 악화일로, 더 불평등해질 것으로 예상돼
: 전환의 단초로 보편성-무조건성-개별성 갖춘 기본소득 꼽아

정리: 한인정
기본소득 연구소

"분배 정의, 젠더정의, 기후 정의…. 우리는 이 모든 고민을 해야 하는 절멸의 시대 앞에 서 있습니다. 삶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다중 위기의 시대에서 우리는 어떻게 위기를 바라봐야 하며, 기본소득은 그 안에서 어떤 의미를 띨까요? 오늘 이 시간은 기본소득의 시대적 의미를 고찰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세션 4. 사회자 이지은 발언 중)

전체세션 4 '다중적 위기 시대의 기본소득'은 생태, 노동, 돌봄 위기의 최전선에서 위기를 분석하고, 위기의 변화 속도를 예측하는 영역에 서 있는 이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 사회가 처한 위기는 점차 불확실/불안정성이 높아지며 가속화되고 있다. 이들의 발표를 듣고 있노라면, 그야말로 절멸은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 이들은 각자 다른 것처럼 보이는 분야에서 '기본소득'이라는 우산 아래 모인다. 위기를 위기로 끝내지 않고,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실마리로서 '기본소득'을 선택한 것이다.

1. 위기의 시대, 잘못된 대응, 가중될 위기

1) 인공지능과 노동의 위기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에 천착하여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인공지능 윤리보다 훨씬 덜 주목받지만,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며 "인공지능 발전의 핵심이 제조기술이나 신소재 생산이 아니라 '시간의 경제'와 닿아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는 인공지능으로 인해 경제가 더 빠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이야기로, 그는 인공지능이 자본의 생산시간, 유통기간, 재투자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내며 수익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가 이러한 상황을 위기로 보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생계노동으로부터 해방하고, 각 인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금 소장은 "인공지능은 인간 활동에 대한 디지털 기록인 데이터를 천연자원처럼 채굴하고 처리하며, 데이터 기반 가치 창출의 기반[1]으로 삼고 있다"라며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수익은 플랫폼 기업, 즉 자본이 독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즉 인간 활동의 일환인 데이터노동이 '착취를 넘어, 전유 되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공지능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고, 전반적인 임금하락 현상이 가속화되며 디스토피아적 미래로 귀결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사회정책과 돌봄 위기

뉴욕대 상하이 캠퍼스 정치학과 교수인 젤레케Almaz Zelleke는 자본주의 이래로 가속화되는 돌봄의

1) 인간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데이터는 인공지능을 존재하게 하는 '현재진행형' 원초적 축적primitive accumulation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기에 주목한다. 젤레케는 "가부장적 질서에 의한 성별 불평등은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당시에는 최소한 여성, 남성, 아동이 농업 및 비공식 노동시장에서 함께 일했다"라며 "하지만 자본주의 사회가 도래하고 경제활동이 도시와 공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가정과 직장이 분리되었고 성별 분업으로 이어지고 공동책임이었던 돌봄을 위해 어머니(여성)이 혼자 집에 남겨졌다"라고 말했다.

젤레케에 따르면 이와 같은 공간-역할의 분리는 근본적으로 생산이 재생산에 기대어 있음을 외면하게 만들고, 단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이다. 젤레케는 이를 자본주의가 돌봄의 에토스(비영리, 호혜, 관계)[2]에 기대어 있음에도 이를 단절하고 오롯이 자본주의 에토스(축척, 착취, 소외)[3]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나아가 현 사회가 직면한 돌봄의 위기는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그동안 무상 혹은 저렴한 비용으로 전유했던 돌봄을 더 이상 원하는 방식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젤레케는 △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인력 부족 △ 돌봄 제공자들을 남반구에서 북반구로 돌려내는 현상 △ 선진 자본주의 경제의 출생률 급락 등으로 돌봄의 위기가 드러나고 있다고 말했다. 젤레케는 주로 돌봄 노동자들이 여성인 점을 고려할 때 돌봄의 위기가 곧 여성의 위기로 직결되며 정치-경제-사회적 불평등의 만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주목했다. 더 큰 문제는 사회정책이 이러한 돌봄의 위기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젤레케는 "사실상 생산이 무급 재생산 노동에 기반함

2) 비영리성Unprofitable, 호혜성Reciprocal, 관계성Relational

3) 축적Accumulative, 착취Exploitative, 소외Alienating

에도 불구하고, 이를 외면하는 현상이 사회정책에서도 드러난다."라며 "사회정책이 무급 재생산 노동을 외면하고 유급노동-생계부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무급 재생산 노동자(대부분 여성)의 사회적 위치가 취약해지며 비생산적·의존적인 존재로 낙인찍히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젤레케는 이어 EIEG 젠더 평등지수EIGE Gender Equality Index를 통해 높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유럽마저도 젠더불평등 현상에 직면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대부분의 복지선진국 역시 어머니를 포함한 대다수 여성이 유급고용에 종사하면서도, 무급돌봄에 대한 불균형적 책임을 지고 있음을 드러낸다. 젤레케는 "고학력의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유급고용·노동 시간이 짧고, 고용 지속성이 떨어지며 임금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젤레케는 가구 단위의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여성의 경제적 안정을 저해하고 있는 증거를 들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정책Social Assistance_EITC, TANF은 부부소득이 합산되면서, 저임금을 받는 이(대부분 여성)에게 불리하게 설계되어 무급돌봄 노동과 근로소득이라는 이중책임을 지고 있는 이들이 돌봄에 대한 책임을 다른 부모와 공유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또한, 그는 부부공동과세 시스템하에 있는 맞벌이 부부 중 (주로 여성으로 간주하는) 보조소득 배우자가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현 조세체계는 부부공동과세 시스템으로 배우자 간 소득세 부담을 균등하게 하여 주 소득자에게는 입장에서는 누진세가 낮아지지만, 보조소득자로서는 누진세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보조소득자의 유급노동을 최소화하고 주 소득자의 유급노동을 최대화하려는 경제적 유인을 만들어 불균등한 분업을 강화하며 나아가 연금까지 연계되어 성별 불평등을 강화한다는 주장이기도 하다. 또한, 성별 분업을 강화하는 정책은 생계부양자, 비-고용된 돌봄 제공자로 나뉘는 가구에 세제 혜택을 주는 현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젤레케는 "성별 분업에 충실한 가구가 부부합산소득 제도를 활용하여 오히려 취약한 가정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라며 "이들에게 주는 세제 혜택은 공공돌봄서비스에 지출할 세수를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젤레케는 표면적으로는 시민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고안된 성 중립적 소득지원 프로그램이 오히려 무급노동과 유급노동의 성별분배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더 심화시키고, 강화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젤레케는 유럽연합 2023년 성 평등 보고서를 인용하며 회원국의 사회지출이 미국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임금, 연금, 무급돌봄에서 성별 격차가 지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젤레케는 경제참여지표가 성별 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며, "미국 역시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스웨덴, 핀란드 등 유럽 4개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보다도 여성의 경제참여지표가 높은 편이지만, 사실상 이러한 경제참여지표가 성 불평등, 성별 분업을 해소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3) 무한한 욕구와 생태적 위기

포르투갈 민호대U Minho 윤리정치대학 연구원인 핀투Jorge Pinto는 '유한성과 미래Finitude and Future라는 발표를 통해 생태적 위기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서두로 인간과 지구의 유한성에 대한 고민을 던졌다. 그에 따르면, 인간의 삶은 유한하므로 취약하다. 하지만 지구 역시 행성의 한계로 유한하며 취약하다. 그러므로 핀투는 인간의 삶과 지구는 이러한 공통된 유한성을 기반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삶의 질을 보장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핀투가 주목하는 문제는 사람들이 이러한 유한성을 수용하지 않거나, 외면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핀투는 시민들의 행동유형을 2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했다. 하나의 대응 양상은 '탈출'로 외부적 탈출과 내부적 탈출이다. 외부적 탈출은 부가 독점되고 집중되며 불평등이 증가하는 이 시점에 '엘리트에 의한 지구 탈출'을 꿈꾸는 일이다. 이는 그가 언급한 영화 '엘리시움'처럼, 기후위기로 불타는 지구를 떠나 다른 행성을 찾아 그들만의 왕국을 구축하는 '1%'의 특권층의 이야기다. 내부적 탈출은 '마음 챙김의 정치politics of mindfulness'로서 생태학적 위기를 마음의 문제로 인식하고 각자의 마음가짐을 달리 하는 것으로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핀투는 이러한 정치가 개인에게 효과적일지 모르지만, 세계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대응 양상은 '도피'로 변명 혹은 비난을 하며 결국에는 상황을 외면하는 방식이다. 우선 '변명하며 도망치는' 이들은 자신을 개인에 불과하다며 사회에 영향력 끼치기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오롯이 '자신'만을 생각하며 각종 사회위기에 무관심하다. 또한 '비난하며 도망치는' 이들은 생태학적 위기를 '위기'로 간주하지 않고, 이를 지구가 자신을 스스로 보호하는 일일 뿐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은 그저 사람들은 자신이 행동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뿐이라며 현실을 외면하는 모습을 보인다.

2. 다중적 위기를 기회로 바꿔낼 '기본소득'

그렇다면 경제구조의 변화, 사회정책, 시민들의 행동 양상까지 모두 위기를 '더 큰 위기'로 격화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 발제자들은 서로 다른 위기에 주목하면서도,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기본소득이 만들어낼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금민 소장은 인공지능 자본주의 내 존재하는 분배와 감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이야말로 인공지능 혁명이 가져올 광범위한 저임금에 대한 강력한 대응책이며, 완전 자동화 사회를 준비하는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금 소장은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에 기본소득의 정당성이 내포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먼저 인공지능 개발을 가능하게 만든 기술은 인류의 공통된 지식에 의존하며, 그중 다수는 공공의 투자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나아가 인공지능 정치경제학으로 보면 기본소득은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학습데이터에 의존하며, 알고리즘은 일상적 데이터 수집 없이는 작동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인공지능 자체가 일상적 데이터에 기대어 있다면, 인공지능을 사용하여 발생한 수익 일부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기본소득으로 분배해야 하는 것이다.

젤레케는 기본소득이 돌봄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라고 말했다. 기본소득이 그 자체로 현대 자본주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지만, 근본적으로 비영리적 인간관계를 인정하고, 가능케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젤레케는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가 지닌 불안정성과 상호의존성을 보장할 수 있는 도구로서 기능할 수 있다며, 기본소득이라는 아이디어가 우리를 '성평등한 사회'로 이끄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존의 부부합산 소득보장정책과 달리 기본소득의 원칙 중 '개별성'이라고 하는 특성은 유급노동과 무급노동 사이의 성평등적 분업을 촉진하여 여성의 유급노동시간이 증가하고, 남성의 노동시간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는 무조건적이고, 보편적이고 특히 개별적인 기본소득이 모든 돌봄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할 뿐 아니라, 존재하는 성별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젤레케는 "페미니즘 관점에서 기본소득에 대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이를 성 중립적인 지원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것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라며 "앞으로 우리는 성평등한 소득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데 있어 정치적 장애물이 무엇인지 밝혀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기본소득을 시행하기 위해 각국에서 노력하고 있음을 안다."라며 "기본소득이 궁극적으로 성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전환점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우리의 논의가 그 토대를 설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핀투는 UBI가 부의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 세대 간 정의를 실현하고, △ 진보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불평등이 감소하는 것은 부유층의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으며, 모든 시민이 생태계에 해를 끼치는 활동을 덜 하며, 완전고용과 비교하면 일자리 공유가 더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핀투는 '가능한 탈성장 시나리오' 중 하나로 기본소득을 통한 지역 자급자족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이 모델은 자본 집약적이지 않은 상품의 가격을 낮춰 더 많은 사람이 경제성장의 신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원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처럼 생계노동을 벗어난 개인들의 도전은 더 많은 사회혁신(자치, 협동, 사회보장과 관련된 역할 등)을 일으킬 것이며, 여유시간의 증가는 정치혁신(참여)으로 이어져 생태 친화적 사회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실 절멸의 시대 앞에서,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는 일은 극렬한 저항을 받을 수도 있을 테다. 포르투갈에서 정치 활동을 펼치는 사회운동가이기도 한 핀투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기본소득 운동의 태도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다. 핀투는 "우리 모두에게는 새로운 상상계가 필요하다. 인간에 의한 인간 혹은 인간에 의한 자연 등 지배를 위한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호관계를 중심에 두고 나아가자"라며 "무엇보다 우리의 활동이 유쾌한 방식이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으며, 고개가 끄덕여졌다. 치밀한 분석과 확고한 대안과 미래상. 그리고 재미있고, 유쾌한 동료들. 아마 그 정도의 조합이라면, 위기를 넘길 가능성은 충분할 테다.